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
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479호

서기 2004년 6월 23일
(음력 5월 6일) 수요일

29

법공양 페이지

자성을 믿는 마음으로 당당하고 무겁게 살아가세요!

478호에 이어서

▲질문자9: 감사합니다. 한 가닥 접어서 생각하면
어느 하나도 질문할 것이 없고요. 또 한 가닥 접어
서 생각하면 질문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기회에 제가 한번 나와 보았습니다. 저는 선원에
한 다섯 번째 정도 나왔지만 절을 다닌 지는 한 20
여 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믿음은 확
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외숙이 목회자였습니다.
저를 진도를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고 했는
데 아무리 애써도 전혀 믿음이 오지 않아요. 기독
교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
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거부감이
들어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인간을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지
 말고 법을 따르라." 하시면서 가셨던 게 참 마음에
스팠어요. 그러나 이렇게 절에 꼭 다니면서도 별
로 그렇게 믿음이 크게 오지를 않았는데 한 2개월
전에 스님의 법어집들을 좀 봤습니다.

전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제
가 지나는 세월을 보면 '아, 대행스님이 말씀하셨
던 내용하고 내 생활하고 어찌보면 이렇게 같은가.'
하면서 참, 통감이 가고 '아, 이했었구나!' 하면서
머뭇머뭇 '그 마음자리로 살아왔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은 지금도 확
오지를 않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절에도 한
번씩 나가고 또 선원에도 한 번씩 나오면서 조금
흔돈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종교
를 갖지 않고 무신론자들도 마음만 내고, 적극적인
인 마음만 내면 그 신비로운 인간의 무한한 능력
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것과 불교와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가, 한마음 공부와의 차이는
어떠한 것인가, 그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저
는 그래요. 저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괴로울 때는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마음으로는 그런 모든 내 마음
을 내가 내리다보면서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
이 들어요. 그 마음공부하는 데는 주저주저하면
서도 내가 한마음이나 선원이나 불교에 매달리지
않고 생활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살아도 되지 않
을까 하는 혼돈이 와서 믿음이 잘 안 오는데 스님
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님: 아휴! 참, 이런 종교인을 다 봤나, 하하. 이
세상이나 사람들과 놓고 아, 세상의 생활하고 불
교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떨어져? 불교라는 것은 영
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야. 우리가 말하고 들
어가는, 이 같은 마음으로써 말을 하고 들어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敎)야. 일체 만법의 생활이 그대로
불법이야. 우리 인간들의 법이란 얘기가. 그런데 뭐

가 따로 따로 있다고 따로 따로 생각을 하겠소? 그대
로가 한마음의 근본이며 진리다 이거야. 불교가 어
느 한 쪽에 국한돼 있는 것이 불교가 아야야.

▲질문자9: 그렇죠. 그러면 절에 안 나오고 생활
을 하는 사람도, 잘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한마음
으로 그냥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
의 불교이긴 불교인데 그것도 옳은 일인가요?

▲스님: 어허, 이거 봐요. 왜 당신네 자녀들을 당
신네들이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지 왜 학교에
보내요?

▲질문자9: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스님: 허허허, 하여튼 모두 다양하게 이렇게
질문들을 해주니까, 모두 주변에서도 듣고...

▲질문자10: 저는 세 번째 찾아왔습니다. 먼저
스님을 만나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미래에 백년해로할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 맞인지 사이가 안 좋습디다. 이렇게
주인공을 믿고 관(觀)하면 서로 한마음이 될 수 있
는지요.

▲스님: 그렇게 한마음이 될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잘 해서 잘 분간을 해야 돼. 내 그
릇이 얼마만한 그릇인가? 그쪽 그릇은 얼마만한
그릇인가? 잘 봐서 같은 그릇으로써 인연을 맺는
게 좋겠지. 그거를 봐야 하고, 또 그렇게 봐서도
그 경로가 마음이 잘 통하지 않고 그렇다면, 통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무 엄청나게 기울어진다면
통할 수가 없겠지, 자연적으로 그런.

요, 몸이 첫째 망가지요. 왜 망가지느냐? 내가 성
질내는 대로 속에 의식들도 다 성질을 내거든. 그
러니깐 몸이 망가질 수밖에, 나 이거 거지말 아니
예요. 허허허.

▲질문자10: 감사합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스님: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좋고
좋은 날, 이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따라... 멀고 먼
데서도 찾아왔는데, 아, 그러면 갔다가 와! 그거
뭐 걱정할 거 đâu. 갔다가 와! (대중 웃음) 갔다가
와! 아냐, 갔다 와!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고 싶더
면 자기 발로 자기가 갈 거라고, 내가 화장실에 가
고 싶은데 '안 갈까, 갈까?' 이거 생각 안 한다고.
그냥 갈 수 있다면 그냥 가는 거지, 뭐, 번소가 없
나 뭐가 없나, 뭐?

▲질문자11: 우리 애가 가끔 가다가 쓰러집니
다.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스님: 해보십시오. 너무도 괜찮은 도리입니
다.

▲질문자11: 예, 저 멀리 경북 청송군에서 어제
왔습니다. 그러니 스님, 저의 애를 좀 낫게 해주십
시오.

▲스님: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좋은 도
리입니다. 광대무변한 도리죠. 예, 그렇게 열심히
해보십시오. 본인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질문자11: 본인도 왔습니다. 나이도 스물아홉
살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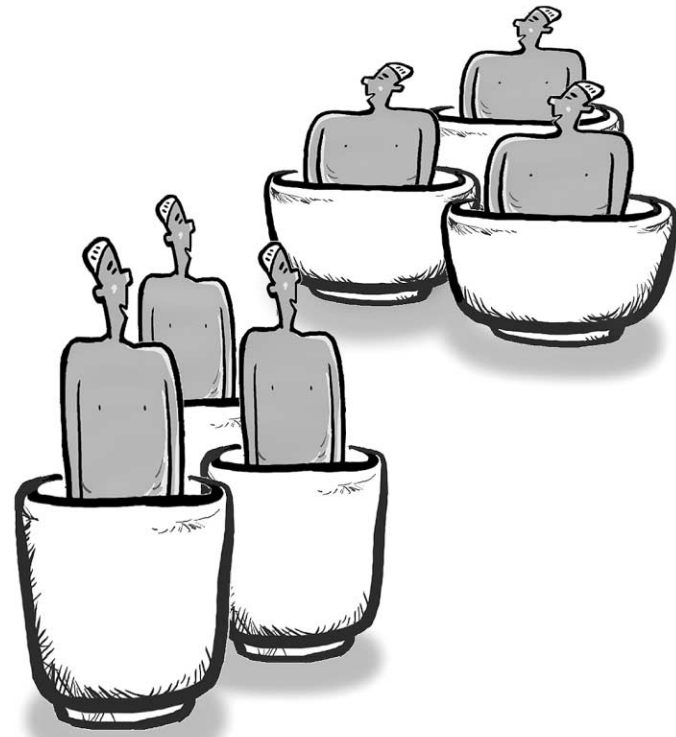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감사함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야 과거의 업보가 훌륭히 녹아집니다

▲질문자10: 지금 군인입니다. 장교로 있습니
다. 삼사 출신으로 가세요. 그런데 성격 맞인지 너
무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마음 주인공
당신만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당신만이 이룰
어쩔 수 있다고 믿고 거기가 맡겨요. 알았어요?

▲질문자10: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성격이
날카로우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목에 감상선
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거든요.

▲스님: 그것도 내 주인공만이 낫게 할 수 있다
고 믿고 거기에 낚요. 성질이 올라오거나 성질이
나는 것도 거기서 나는 거니까, 성질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것도 거기라고 믿어요.

▲질문자10: 감사합니다.

▲스님: 성질을 자주 내지 말아요. 성질을 내면

▲스님: 항상 감사함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
야 과거의 업보가 훌륭히 녹아집니다.

▲질문자12: 스님, 하도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스님을 뵈고 간 뒤로 제 팔이 풀
업도 안 하고 좋은 데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 이
틀날 바로요.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얼마 많지
않은 첫 월급이지만 스님께 올렸습니다. 또 제 소
원은요, 막대한 능이 광주 시내에서 학교를 다니
는데, 작년에 떨어져가지고 올해 다시 재수를 했
답니다. 그런데 실력이 좀 부족한 탓인지 시험은
쳐어도 저는 형식 그게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
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는 참 마음이 정직
하고 그런데 빛을 좀 많이 썼습니다. 시골에 눈이
좀 있는데 퐁 매매가 안 돼요. 매매라든가, 어서
하루속히 빛을 좀 갚았으면 싶어서, 하도 걱정스
러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스님: 예, 그것이 바로 인생살이의 본 마음이
죠. 그거를 살다 할 사람 없습니다. 또 살다 할 부
처님 안 계십니다. 그러나 열심히 감사하게 생각
하면서, 앞사의 그 줄을 잡았으면 그 줄을 놓치지
않고 안 하고 좋은 데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 이
틀날 바로요.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얼마 많지
않은 첫 월급이지만 스님께 올렸습니다. 또 제 소
원은요, 막대한 능이 광주 시내에서 학교를 다니
는데, 작년에 떨어져가지고 올해 다시 재수를 했
답니다. 그런데 실력이 좀 부족한 탓인지 시험은
쳐어도 저는 형식 그게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
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는 참 마음이 정직
하고 그런데 빛을 좀 많이 썼습니다. 시골에 눈이
좀 있는데 퐁 매매가 안 돼요. 매매라든가, 어서
하루속히 빛을 좀 갚았으면 싶어서, 하도 걱정스
러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질문자13: 아래층에 있다가 용기를 내서 올라
왔습니다. 저희들도 온 식구들이 다 주인공 공부
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당뇨로
눈도 안 보이고 수술도 하시고 병석에 오래 누
워있어서 바깥 출입을 못하고 있는데, 한 몇 달 전
부터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 인슐린도 안 맞고 병
원에서 약 타오는 것도 안 하고, 어머니도 마음을
내서 일을 안 먹고 해서, 그전까지는 방에서 열광
으로 움직이는 것도 잘 못했는데 주인공 공부 하
면서 몸이 많이 좋아져서거든요. 그래서 참 고마
운 일이다 하고 딴 사람들에게도 주인공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
중에, 얼마 전 밤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지셨
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도 우리 공부 시키
는 것이다. 주인공한테 놓자.' 이렇게 생각하는 하
는 데 자주 얼마가 고통스러워하시니까 간절한 마음
이 부족한 것인지, 말기는데 말기는 공부를 잘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님: 못하는 게 아니라요, 잘하십니다. 잘하
시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죽는 거든 사
는 거든 양면을 다 놓으셔야 됩니다. 죽는 거를 살
리려고만 애쓰면 저울이 기울어져요. 그러니깐
죽는 거든 사는 거든 양면을 다 놓으셔야 빛, (손
가락을 하나 세워 보시고) 광명이 탁! 번쩍 일어
나죠. 예? 죽는 거를 두려워하고 살리는 것만 애
쓴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 도리를 파악할 수
도 없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려면 올바르게 양
면을 다 놓으시는 작업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질문자13: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님: 열심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질문자13: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자14: 스님, 저는 말이인데요. 막내 시동
생이 스물일곱 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른한 살인데 애통도 어리고
아직도 젊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아파서 주인공
공부를 배운 뒤로는 늘 지극하게 마음을 내서 계
속 관(觀)을 합니다마는, 제 정성이 부족한 탓인지
아직 낫지를 않고, 또 그 시동생이 교회를 다닙니
다. 그래서 제가 가서도 스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네 가슴속에 함께 계시다. 밖으로 하지 말고 기도
를 해도 안으로 하라.'고 제 나름대로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낫지를 않고 그래서 오늘은 이 법
회 오기 전에 광주에서 생각하니까, 내 아들 딸이
있다면 스님한테 진작 먼저 달려왔을 터인데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용기를 내서
스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가면 스님 앞에 꼭 말씀을 드릴 태
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스님: 부처, 태양은 즉 말하자면 동구멍이라
고 태양이 비춰주질 않고 또는 동구멍이 아니
라고 비춰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단지 빛을 가
리고 있으니까 태양이 들어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알아들으시겠지요? 그와 같은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여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
마음, 한마음 내서 이끌어가는, 그 다스리는 마음
이 있어야만이 몸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죠. 그
런데 마음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
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길 인도하는 나를, 감
찰 이를 잘못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본인한테 몸
나을 때까지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해보십시오.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생명 아닌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불교가 따로 있고 기독교
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어딴습니까? 그렇게 마음들
을 좁게 쓰니까 그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질문자15: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보살입니다. 전번에 스님 친견을 한 번 한 적이 있
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심장을 많이 다쳤
는데 정신이상이라 해서 스님한테 한번 공부하는 도
중에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렇게 공부하는데 그 후에 또 11월 달에 정가회화
에 왔었는데 꿈에 스님이 공부하는 도중에 저한테
줄을 하나 던져주셔서 줄을 받아 쥐었는데, 줄
이 아니고 토론티였어요. 토론티였는데 이것이 무
엇인지 이 속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겠습니다.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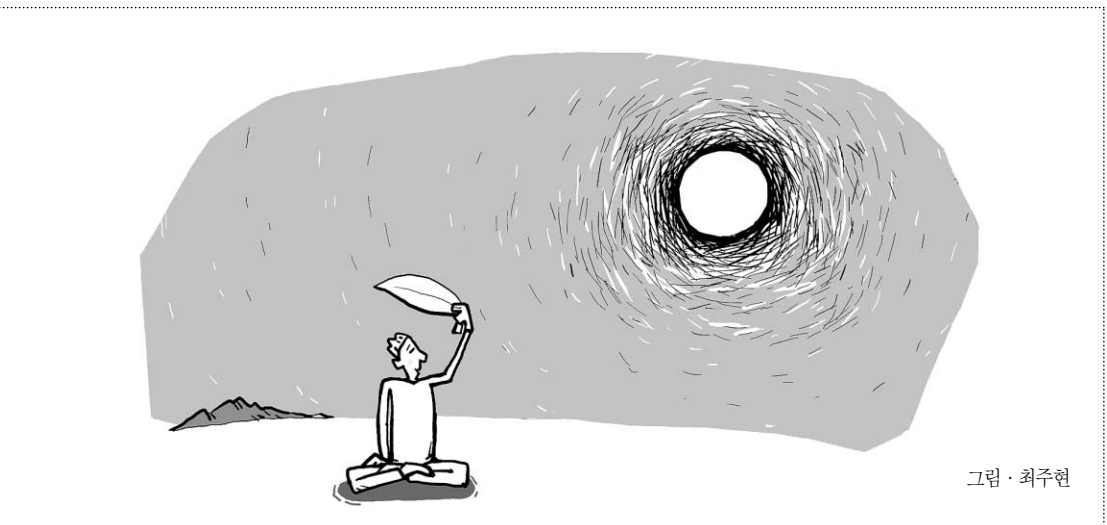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진실해야

29면에서 계속

▲스님: 이 마음을, 죽는다 산다를 그냥 놓고 작업하는 것이 통괄리는 겁니다. 모가 나지 않게 말이예요. 돈이라는 것은 들고 도는 것이 돈이죠, 뜻을 본다지요.

▲질문자15: 네.

▲스님: 그러니까 이 오온(五蘊)의 진리가 그대로 인간의 마음에 모두 직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직결돼 있는 그 자가 발전소에도 모든 걸 놓으세요. 거기다가 맡기시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진정코 가져보세요.

▲질문자16: 그래서 저번 첫째주 법회에 의거하고 스님께 두서없는 글월을 올렸습니다. 총무스님께서 몇 자 적어놓고 가라 해서 적어 올렸는데 전화도 몇 번 올렸고, 행여나 토론이라서 차를 타고 오면 약이 있을까 해서, 심장을 많이 다쳤으니까. 그래서...

▲스님: 걱정 마시고요, 어서 그렇게 해보세요.

▲질문자15: 네, 감사합니다.

▲스님: 부처님도 죽고 사셨는데, 이 몸뚱이야 늦게 가나 빨리 가나 가기는 일반입니다. 하지만 빛을 때가 되면 빛는 거고 또 나을 때가 되면 낮는 거죠. 뭐, 열심히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질문자16: 스님, 저는 심장판막증으로 몇 년을 고생하다가 서울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동생을 통해서 스님 친견을 한 결과, "수술은 하더라도 간단한 수술이니 걱정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얘기를 듣고 나서 병원에서도 검사 결과가 스님 말씀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어려움 없이 수술을 마치고 낫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숨이 차고 땀배가 불려서 무척 힘이 듭니다.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스님: 수술을 해서 오히려 망가뜨리는 수가 있고 수술을 안 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사 박사님들도 보이지 않는 데 50%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35%밖에는 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65%는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판막증이라면 다른 기능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그렇게 되죠.

▲질문자16: 그렇게 안 하고요, 그 부분은 다 깨끗하고 판막 하나만 매웠다고요. 나팔로 해서 거기를 넓혀줬거든요. 환관 따라서요.

▲스님: 그걸 그렇게 넓혀줬다고 하더라도 세 포 하나하나에 그 의식들이 기능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요. 한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진실하다면 괜찮아질 데죠.

▲질문자17: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어린애를 못 낳아서, 말씀 좀 들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스님: 그런 말 들어보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말 들어보는 데가 아니라, 그 말을 들어보지 않고도 자기가 리더해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그런 데입니다.

▲질문자17: 결혼한 지가 한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었는데 밤낮 시집에서는 기다리고...

▲스님: 여기는 공부 가르치는 데고 길을 인도하는 데니깐, 나와서 길을 인도받으라고 그러세요.

▲질문자17: 여기 나왔습니다. 전라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중 웃음)

▲스님: 허허허, 열심히, 열심히 말입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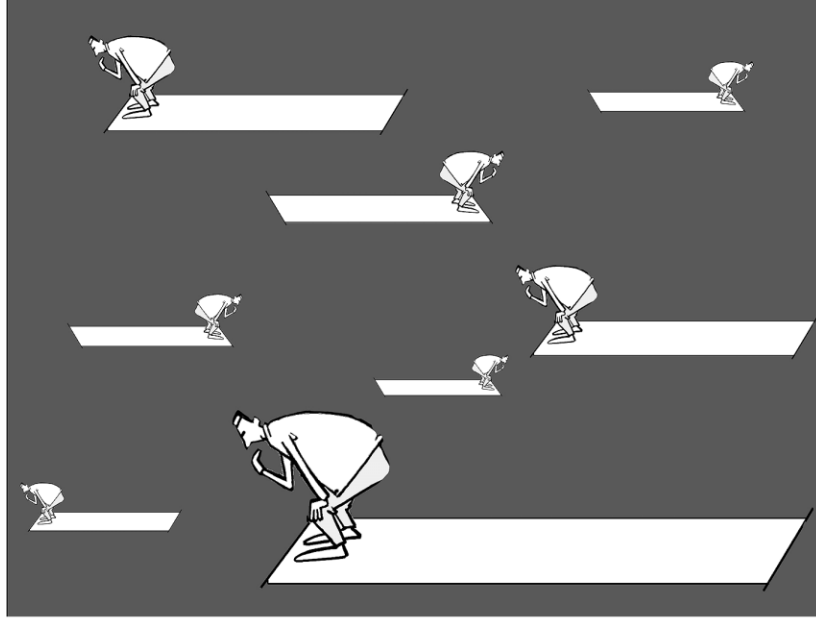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이 모두가 그러그러하니깐 그저 그러그러하게 여여한 마음으로써 마음을 톡 놓고 인생살이를 해봅시다!”

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이 한마음이라는 것은 일체제불과 같이 한데 뭉쳐 있는 자체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다 한마음으로 뭉쳐 있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누가 말을 하면 한눈 팔지 마시고, 본인더라도 그저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라고 그러십시오.

▲질문자17: 감사합니다.

▲스님: 이거 뭐, 허허허, 아니,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질문자18: 스님, 감사합니다.

▲사회자: 마음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스님: 그저 아주 낮고 중간이고 제일 위고, 삼합이 다 맞아서 돌아가는 이치니깐 내버려두자. 허허허, (대중 웃음과 박수)

▲질문자18: 스님! 감사합니다. 먼저 대구에서 사위 때문에 온 보살입니다. 천도제 이후에 유방암이 풀수없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피부가 세록 세록 살아하는데 아픈 거를 저렇게 못 견디니까 담당해서 여쭙어보는 겁니다.

▲스님: 나야 뭐, 의사가 아니니 무슨 다른 말을

해주겠습니까?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저 아까와 같이 세포 하나하나에 그 의식들이 기능을 해준다만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길을 가는데 내 발목을 붙들고 놓지를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기 (왼쪽 목을 가리키시)고 목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굳어져서 병원에서 풀었는데도 풀은 자체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다 죽게 됐다고 붙들고 우는 겁니다. 가질 못하게 하니 어떡합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고, 진정코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육체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린애를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아, 그게 그냥 그날부터 움직여라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빼도 아무 탈 없이 그냥 말하고 그냥 먹고, 그래서 상까지 받았죠. 무슨 상이나 하면은요, 감사하라는 상요. 허허허, 무언의 무심(無心)의 상 말합니다.

▲질문자18: 저번 토요일날 그날 한 세 번 일어나서 밥을 새웠어요. 하도 아프다니깐요. 그런데 그날 꿈에 스님께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젯밤 꿈엔 밥을 새워서 기도를 하니깐, 뭐 희서 상을 가진 사람 발목을 잡으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게 허황된 꿈인 줄은 아는데 스님께 여쭙고 싶어서요.

▲스님: 꿈이 허황된 것도 아니고 안 허황된 것도 아닙니다. 생사가 꿈이고 꿈이 생사니깐 말입니다. 이 모두가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마음을 먹고 꿈도 꾸는 거고, 꿈을 꾸는 것도 이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마음으로써 당당하고 담담하게, 믿는 마음으로써 당당하고 무겁게 두시면서 해보십시오. 그게 발목 붙드는 얘깁니다.

▲질문자18: 본인도 열심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니 다음 주 법회에...

▲스님: 세상이 모두가 그러그러하니깐, 그저 그러그러하게 여여한 마음으로써 마음을 톡 놓고 인생살이를 해봅시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와 우주 천지도 없으며
사생(四生)과 사계절도 없으며
동서와 시간도 없으며
공(功)한 것도 없으며
없는 것조차 없는데
곳곳마다 바람과 물 없는 곳 없고
꽃 안 피우는 곳 없고
두루 푸르지 않은 곳 없으니
알산 뒷산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며 화(化)하여 나투는데
받은 방대로 있고 손은 손대로 되더라
어찌 광대무변하다 아니 하리.

(게송을 읊으신 후 법좌에서 내려오심)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51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역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불행한 운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중생은 그 불행한 운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떠나야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관음사는 아프고 고통받는 중생들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스님과 상담하고 기도하는 법이며 스님은 삶의 굴곡을 겪고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답답함과 고민을 스님의 도력으로 그 불행한 운명을 퇴치시켜 시원하게 풀여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 **곳을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나 부모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서로 같이 살면서도 고통속에 살며 자식이 결혼운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가 장사가 안되고 매매가 안되 궁궁하신 분**
- **인생의 성공과 실패 시험결과, 사업의 시작과 끝 즉 자신의 사주에 들어오고 나가는 운이 궁궁하신 분**
- **신물림으로 몸이 아프거나 살상하고 헛소리나 행동을 하는 사람**
식기모나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디입니다. 아직 인연이 닿지않는 분을 혼자서 고민 말고 바로 진화 주십시오. 조상친도 내대아전도 행복을 가져오는 격귀들이를 돈이 많이 들어 망살이시는 분 연락주시면 보시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병행 하였습니다. 천도만 첫째는 3의도에 떨어지는 가장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고 두번째는 인간됨을 받았지만 뒤떨어지는 노릇이 없고 내똥에 맞지 않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천도만 자기소원을 이루고 기가지기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을 친견하면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관음사 주지 고봉 합장
전화 011-715-6333

복사에 어려운 스님 사주해변비법과 기공과 명상으로 영가천도를 하는 영력천도비법을 개인지도 합니다.

알립니다

산종고 물종고 공기중은 이룩한 산속 기도도량입니다.

천년전 입체미륵 석불이 땅속에서 나투신 영험민는 기도도량을 준비하는 관계로 이제서야 개방함을 알립니다.

조계중스님으로 강원 및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법력10년이상된 엘리트스님 6분**을 모십니다. 보시금은 최고대우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찰음식에 자신 있으신 **공양주보살님 2분**도 함께 모십니다. 보시금 100만원. 또한 **삼사순례 주지사님**께서는 미리연락주시면 점심공양을 무료로 드립니다. 공양인원은 5백명까지 가능합니다.

기도하실 처사님, 보살님께서는 통나무 하우스에서 무료숙식 가능하오니 **누구라도 기도요청을 받아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나우마하반야바라밀 주지 삼일 합장
031-884-4883
찾아오시는길 : 영동고속도로 여주인터체인지에서 좌회전 → 장호원방면으로 8km가서 전동면 소재지에서 **미륵사**를 찾으십시오.

간(肝) 이 **간(肝)간(肝)간(肝)**의 **간(肝)간(肝)간(肝)**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옹달머리와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물 씹는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기마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①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채근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기마술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끓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한다.

②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참아리애 넣고 원저 97리니를 달은 뒤 원저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서 끓어오르던 향이리애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저가 타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선청:055)963-9583 · 상담문의:055)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신전성 냉채 산후바람 남 습 진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임에서 임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신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건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족의학자 권재우 홍(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